



2015년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 2015년 제2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보고 및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심사, 2015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2015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결과』 보고임.

## 개 요

- 일 시 : 2015. 5. 20(수) 14:00 ~ 16:00
- 장 소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6층 배움터)
- 참석인원 : 총 27명
  - ▶ 대표협의체 위원 : 총 26명중 18명 참석(69.23%)
    - 참석위원 : 18명  
박진희, 강근수, 배민한, 엄정숙, 서덕원, 박은순, 김형인, 자원자, 김민수, 박승자, 문정휴, 이수경, 김성근, 주승훈, 권혁, 양진하, 이상남, 김수정
  - ※ 미참석위원 : 8명  
염태영, 서태원, 유재광, 유혜영, 이성진, 이용호, 김춘길, 박치홍
  - ▶ 사회복지과 : 김창범, 황호성, 김충영 3명
  - ▶ 협의체사무국 : 박창재, 임복희, 허운범, 이주미 4명

##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2015년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 위원변동 사항 등

### 2) 안건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심사
- 2015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1차 추가경정 예산(안)

## 회의결과

### 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심사

○ 심사결과 : 후보자 최종 6명 선정 (후보 신청자 17명 중)

#### ○ 주요내용

- 목 적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함.
- 심사위원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 심사방법 : 선정심사지표에 따라 심사(정량평가 - 협의체 사무국, 정성평가 및 종합평가 - 심사위원)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기준점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후보자로 선정
- 심사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 신청자 17명

## ○ 논의내용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수정 위원	○ 외부추천이사에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가.	허윤범 간사	○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6급이상 공무원과 현재 관련이 있는 자만 제약이 있음. 나머지는 활동 가능함.
	○ 외부추천이사 최초 취지를 감안했을 때 공무원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주승훈	○ 현재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제할 경우 위법일 수 있음. ○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심사하면 무리가 없을 것임.
김민수 위원	○ 우영미 후보자의 경우 근무지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허윤범 간사	○ 최종 확인 결과 가능성 없음.
주승훈 위원	○ 왕영순 후보자의 경우 브솔 학부모인데 관계자로 볼수 있지 않은가.	허윤범 간사	○ 관계자의 경우 혈연관계 또는 고용인 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 경우 관계자로 간주하기 어려움. 다만 최종 추천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추천할 것임.
양진하 위원	○ 양우심 후보자의 경우 지역사회 아동지원 관련 공익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상남 위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활동한 부분은 알고 있으나 이외 공익활동은 무엇인가.
		김수정 위원	○ 공식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점수를 줄 수 없음.
박진희 위원장	○ 17명 후보신청자 중 6명 선정됨.	-	-
김수정 위원	○ 탈락률이 너무 높음. 수원시 외부추천이사 수요가 높는데 이럴 경우 추가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덕원 위원	○ 전년도 선정된 후보자들이 누적되어 있어 가능한 것 아닌가.
		허윤범 간사	○ 6월초 2개 법인 4명을 추천하면 11명이 남아 있게 됨. 이후 9월말 2개 법인 8명을 추천해야 함. 가능한 범위이긴 하나 추천 시 법인의 거부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박진희 위원장	○ 법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체 추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임. 추천을 했는데 법인에서 거부한 후보자도 있고 한번도 추천되지 못한 후보자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진행해 보고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이외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함.	-	-

## ② 2015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 주요내용

- 추경사유 - 2015년 상반기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 워크숍 지원금 25,000천원(시비, 민간행사보조금) 추가 경정

○ 논의내용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주승훈 위원	○ 기존에는 어디에서 진행하였는가.	박진희 위원장	○ 지속적으로 협의체에서 진행된 부분으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황호성 팀장	○ 동협의체 활성화지원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시에서 25백만원을 지원하며 협의체 자체예산으로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총3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됨.
박진희 위원장	○ 이의 없음. 원안대로 의결함.	-	-

## ③ 기 타

### 1.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 기준 관련 논의

○ 논의결과 : 차기 회의 안건으로 상정

○ 주요내용

- 정량평가 합산점수만으로 합격선 초과 발생에 대한 적합여부등 논의

○ 논의내용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강근수 부위원장	○ 정량, 정성평가 배점의 문제와 봉사직인 외부추천이사에 대한 높은 탈락률 등 현 심사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추가논의 또는 소위원회 위임이 필요함.	-	-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박진희 위원장	○정량평가의 점수는 낮추거나 정성평가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임.	-	-
김민수 위원	○정량평가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뚜렷한데 정성평가로 낮춰서 선정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정량평가 점수만으로 합격선을 초과하는 후보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그 후보자들이 인정되었다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	-
박은순 실무위원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함. 추천 소위원회 경우 추천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선정기준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최초 지표 논의 시에도 타 지자체 기준들을 함께 검토하여 만든 부분으로 정성평가 20점이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님. 단, 금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하여 다시 대표협의체에서 이부분을 논의해 줄 것을 건의함.	-	-
박진희 위원장	○추천 소위원회의 경우 선정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음. 하여 금번에 추가 논의할 것인지 차기 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것인지를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함.	이상남 위원	○차기 회의 안건으로 사무국에서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함.
		전 체	○차기 회의 안건으로 하는것에 동의함.

## 참고자료

- 1) 관련사진
- 2) 회의록
- 3) 녹취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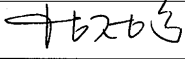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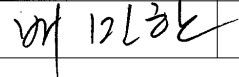
【참고자료1. 관련사진】

2015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사진



【참고자료2. 회의록】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록

일 시	2015. 5. 20.(수), 14:00 ~			
장 소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배움터 (6층)			
참 석 자	총 18 명 박진희, 배민찬, 영정숙, 서덕원, 박은순, 김형민, 장원자, 김수정, 김민수, 박승자, 윤정휴, 이수경, 김성근, 주승훈, 권혁, 양권하, 강은수, 이상남.			
회의주제 및 안건	1) 보고사항 • 2015년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 위원변동 사항 등 2) 안전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심사 • 2015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1차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결과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 - 후보자 최종 6명 선정 (후보 신청자 17명중) 2) 2015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대로 의결 3) 가라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기준안 재논의(안) - 차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논의			
확인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공동위원장	박진희		
	공동위원장			
	부 위 원 장			
	위 원	서덕원		
	“	배민찬		



구분	성명	서명	비고
위원장	서대원	서대원	
"	박은승	박은승	
"	김형민	김형민	
"	김영자	김영자	
"	김수진	김수진	
"	김민수	김민수	
"	백종진	백종진	
"	복정희	복정희	
"	이수경	이수경	
"	강남기	강남기	
"	주승훈	주승훈	
"	권옥	권옥	
"	양진하	양진하	
"	강희수	강희수	부위원장
"	이상민	이상민	
"			
"			
"			
"			
"			
"			
"			
"			
"			
"			
"			
"			

학 인

## 【참고자료3. 녹취록】

# 2015년 제2차 대표협의체회의 녹취록

- 참석자 : 총 27명

- 위원 18명 : 박진희, 강근수, 배민한, 엄정숙, 서덕원, 박은순, 김형인, 자원자, 김민수, 박승자, 문정휴, 이수경, 김성근, 주승훈, 권혁, 양진하, 이상남, 김수정
- 수원시 사회복지과 3명 : 김창범, 황호성, 김충영
- 협의체 사무국 4명: 박창재, 임복희, 허윤범, 이주미

## 1. 보고사항

-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사업보고 : 박은순 실무협의체 위원장
  - 김수정 : 민관협력 공동사업에서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함.
  - 임복희 : 한연주 연구원이 인권팀에서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설문지를 활용해서 수원시에 맞는 조사를 할 예정임. 1차 복지관을 중심으로 할 예정.
  - 김수정 : 종사자들의 노동권들이 조사 내용에 들어가는지 궁금함. 수원시에 맞는 내용으로 해야하며 인권이라고 하면 생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열악한 기관이 누락되면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인권위에서 한 대로 하면 의미가 없을 것. 준비를 잘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임.
  - 박진희 : 복지관들은 그나마 인권 부분이 잘 되어 있을 것임. 민간 어린이집 등 열악한 부분이 있을테지만 1차적으로 복지관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는 부분이며 추후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박진희 : 다른사항 없어 안전심으로 넘어가겠음

## 2. 안건토의

### 1안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

- 제안설명 : 김창범 사회복지과장
- 김수정 : 공무원이 외부추천이사로 활동하는게 맞는가.
- 허윤범 :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현재 관련이 있는자만 제약이 있음.
- 김수정 : 우영미 후보자 의사를 확인한 것인가.

- 허윤범 : 확인하였음.
- 김수정 : 외부추천이사 최초 취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함.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의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참여시켜 보자는 취지가 있는데 공무원을 참여시키는게 맞는지 논의해 봐야 할 것임.
- 주승훈 :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평가하면 될 것임.
- 허윤범 :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배제할 경우 위법일 수 있음.
- 김민수 : 우영미 후보자의 경우 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 허윤범 : 가능성 없음.
- 김민수 : 그걸 감안하여 평가하면 될 것임.
- 박진희 : 평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배민한 : 우영미 경력부분에서 13점인데 18점임.
- 허윤범 : 13점에 기관장 추가점수 5점을 부과해서 18점임.
- 주승훈 : 왕영순 후보자의 경우 브솔 학부모인데 브솔의 관계자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
- 허윤범 : 관계자의 경우 혈연관계 또는 고용인 등 직접적 관계자가 아닐 경우 관계자로 간주하기 어려움. 다만 최종 추천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추천이 이루어 질 것임.
- 허윤범 : 총 평균 점수를 내어 70점 이상자만 후보자로 선정되고 추천될 것임. 이 부분을 감안하여 정성평가를 해 주면 될 것임.
- 양진하 : 양우심 후보자의 경우 지역사회 아동지원 관련 활동을 하였음.
- 이상남 :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활동한건 알고 있음. 이외 어떠한 공익활동이 있는가.
- 김수정 : 공식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점수를 줄 수 없음.
- 양진하 : 정성평가지 반영하면 좋을 것임.
- 박진희 : 정성평가를 하기 전 합격선에 들어가 있는 점수가 있었음. 정성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에 대한 건의가 있었음.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함.

<심사결과 합산 및 최종 선정결과 도출>

- 선정결과 발표 : 17명중 6명 선정
- 김수정 : 탈락률이 너무 높음. 수원시가 외부추천이사 모집해야 하는 수가 많은데 또 모집해야 하지 않는가.
- 서덕원 : 작년에 후보자로 된 사람들이 추천 안됐다고 안되는게 아니고 누적되는 부분이라 가능하지 않겠는가.
- 황호성 : 현재 8명의 기존 후보자가 있는데 추천이 안되었던 분들이 있고 추천을 해도 법원에서 거부하는 후보자가 있긴 하지만 8명이 남아 있음. 수요를 볼 때

2015년의 경우 수요를 감안하면 14명으로 가능한지.

- 허윤범 : 추천에 어려움이 있는 5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면 6월초에 예정되어 있는 2개 법인 4명 추천하고 나면 11명이 남게되고 9월말 2개 법인 8명 추천해야 함. 가능은 한 범위임. 하지만 이 안에는 추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약간 부족할 수 있음.
- 황호성 : 9월 이후로 가면 수요가 있는가?
- 허윤범 : 수치상으로는 추천은 가능함.
- 박진희 :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체 추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하는 방법이며, 추천을 했는데 법인에서 거부하여 다시 오신 분들이 있고, 한번도 추천이 안된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분들임. 향후 진행을 해보고 만약 부족할 경우 추가 모집이 있을수도 있겠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2안. 2015년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 김창범 사회복지과장
- 박진희 : 동주민복지협의체 워크숍 추진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임. 이미 지난달 워크숍을 추진한 부분이며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임.
- 주승훈 : 기존에는 어디서 진행하였는가.
- 박진희 : 협의체에서 계속 진행함.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부분이며 본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임.
- 황호성 : 보완설명하자면 동협의체 워크숍 예산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음. 민간행사 보조금이기 때문에 협의체에 주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임. 자체 예산 5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어 총 예산은 3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지난달 강원도 여성수련원에서 1박2일로 16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음.
- 주승훈 : 지난 회의에서 본인이 동협의체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었음.
- 박진희 : 7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동협의체 관련 사업들에 변화가 있을 것임.
- 황호성 :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동협의체가 시협의체 하부구조로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과 연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 행정조직은 4개구 41개동 구조로 되어있으나 협의체의 경우 시 바로 아래 동이 위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연계성이 우려가 됨. 동협의체의 경우 공공위원장이 동장이고 위촉 권한이 동장에 있는데 시협의체의 하부구조로 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향

후 이러한 부분에 고민이 필요함.

- 박진희 : 향후 조례와 운영세칙을 세우는데 있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일 것임. 이의 없음. 원안대로 의결함.

### 3. 기타안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 기준 재논의

- 박진희 : 평가를 해보니 정량평가 점수가 이미 합격선을 초과한 후보자가 있었음. 이럴 경우 정성평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음.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 강근수 : 정량, 정성평가의 문제점. 봉사직인데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든지 방안이 필요함.
- 박진희 : 정량평가 점수를 낮출것인지 정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던지의 방법이 있을 것임.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함. 또는 추천소위원회가 있으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위임해 주면 좋을 것임.
- 김민수 : 정량평가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뚜렷한데 정성평가로 낮춰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정량점수가 합격선 위인 사람은 많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그 후보자들이 인정되었다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 박은순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맞음. 추천소위원회의 경우 추천의 권한을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여 위임한 것이지 이러한 선정 기준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임. 처음에 지표를 할 때도 타 지역의 지표를 비교하며 만든 부분이 있었음. 이정도면 수원지역에서 이사 추천에 무리가 없을것이라 정한 부분인데 정성평가 20점이 작은 점수가 아님. 심사위원들의 권한과 방어책의 하나로 20점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 오늘같은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해야 할 필요있음.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실제 한번도 추천이 되지 않은 경우나 거부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금 대표협의체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타지역 사례 등을 검토해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 박진희 : 소위원회의 경우 선정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금번에 논의할 것인지 차기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할 것인지
- 이상남 : 사무국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하자
- 박진희 : 차기 회의의 안건으로 하면 되겠는가
- 전체 : 예
- 박진희 : 차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겠다. 이견 없으니 폐회